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8.01 (통권359호)



경제이슈

미국 경제성장세 둔화

6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경영노트

성과와 조직 건전성의 균형

사회 트렌드

피케테로

조찬 공화국

저널 브리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제언

洗心錄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 미국 경제성장세 둔화

- 美 연방준비제도가 7월 27일 발표한 베이지북(Beige Book)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
 - 8개 지역 성장속도 둔화 : 소비와 비금융서비스업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 12개 지역 중 미네애폴리스, 미네소타 등 8개 지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
 - 제조업 :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위축되어 시카고와 캔자스시티를 제외한 10개 지역의 제조업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약화
 - 주택 및 고용시장 : 주택시장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약세를 나타냄
- 경제성장 둔화 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국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통화완화정책 등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 대두될 전망

□ 6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 6월 산업활동동향은 국내 경기의 양호한 성장세로 생산,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5월에 비해 개선
 - 생산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조업 정상화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 소비 : 소매판매는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과 고용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높은 설비가동률과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유가상승 등 대외불안요인과 집중호우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

□ 성과와 조직 건전성의 균형¹⁾

- 건강한 조직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직 구조의 건전성이 곧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성과와 조직 건전성에 모두 주력하는 기업이 성과에만 집중하는 기업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의 실적 향상을 보임

-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장기 목표나 비전 수립 시 성과에 비해 조직 측면의 반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어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함
 - 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비전 수립 시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진 성과 개선 방안에 기반을 둔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조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성과와는 별도의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하여 조직 비전이 기업 전략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성과와 조직이 균형을 이룬 비전 수립 >

	성과 측면	조직 측면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 •(사례) 웰스파고는 두 자릿수의 성장과 교차 판매율 증가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One Wells Fargo'라는 슬로건으로 조직의 유기적 통합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목표에 지향하고자 하는 강한 조직의 의미까지 포함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현재 능력을 평가 및 파악 •(사례)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업체 Bombardier는 조직 능력 평가 리스트를 작성하며 이에 대한 조직원의 부정적 인식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문화 및 태도를 파악
계획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사업상 필요 없는 부분을 명시 •(사례) P&G는 핵심 시장 및 사업과 제외할 사업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동시에 사내 대학, 역할 모델링 등 사고방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원의 사고방식 전환을 위한 업무 환경 및 지도 사항을 개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이나 변경 혹은 중단 여부의 결정을 위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증명 •(사례) 통신기업 텔레포니카 데 에스파냐는 유통 구조, 고객 관계 변화 등을 시도하며 매년 상위 500명의 임원들에게 기업 신년 계획 설계를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 상 변경에 대한 결정 단계에 조직원을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고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인프라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도출 •(사례) 호주의 ANZ은행은 관리자들을 리더십, 업무 역량 및 활력 강화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성과를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변화 관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원들이 스스로 개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문화를 구축

1) 본 자료는 'Organizational health: The ultimate competitive advantage(McKinsey Quarterly, 2011. 6)'를 요약 정리함

:: 사회 트렌드

□ 피케테로²⁾

- ‘피케테로(piquetero)’란 복지혜택에 목매는 아르헨티나의 피켓 시위대를 말함
 -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앞에는 일년 내내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피케테로’가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음
 - 정부가 선심 쓰듯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다 보니 때를 쓰면 먹힌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임
- 이처럼 노조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노조 천국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60년 전 세계 10대 부국을 자랑하다 페로니즘의 뒷에 걸려 이제 남미의 평범한 중하위권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음
 - 팍스 브리타니카를 구가하던 영국이나 일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도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의 위치를 누렸지만 포퓰리즘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음

□ 조찬공화국³⁾

- 호텔마다 조찬을 겸한 세미나로 북적이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조찬공화국’이라고 함
 - 원래 조찬 모임은 관 주도의 경제개발 정보를 기업인들이 흡수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함
 - 즉 장관이나 정책 입안자들을 불러 경제개발 계획을 청취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출발
- 조찬모임은 속도와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DNA와 잘 맞아 떨어짐
 -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출근 전 시간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님. ‘과외공부’, ‘과외미팅’, ‘속성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업무상 필요한 인사를 만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유지 확대함

2) “피케테로에 나라곳간 거덜난다”(서울경제신문, 2011.8.1) 참조

3) “대한민국 역동성의 근원?”(중앙SUNDAY, 2011.7.31-8.1) 참조

□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제언⁴⁾

■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할 것

① 유연한 스케줄을 유지하라

-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량을 줄이거나 업무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움
- 대신 유연한 스케줄을 유지하면서 바쁜 배우자를 대신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② 이메일 사용시간을 정하라

- 상당수 임원들이 귀가 후에도 미처 손대지 못한 업무 보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함
- 적어도 가정에서는 이메일 확인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온전한 관심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함

③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라

- 많은 임원들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고 불평함
- 가족들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서로 간 근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④ 관심사를 공유하라

- 자신의 일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배우자의 일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쉬움
- 배우자의 업무 상 행사나 자녀의 학교 캠프에 동반하여 가족들의 관심사를 지켜봐준다면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음

⑤ 정기 휴가를 계획하라

- 가족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은 일과 삶에서의 활력소를 제공함
- 따라서 정기적인 휴가를 통해 가족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휴가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함

4) 「귀하의 블랙베리 사용 습관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 중인가?」 (포춘코리아, 2011.8) 참조

□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장자는 세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유, 사물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혜를 주고 있다. 절대적 진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사유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넘어서 깨닫게 해 준다. <장자>의 ‘산목’편에는 세상의 이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장자가 산속을 지나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나무꾼은 그 옆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베려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장자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중얼거렸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는 탓에 타고난 수명을 다 할 수 있구나.”

장자는 산에서 내려와 옛 친구의 집에서 목계 되었다. 친구는 반가운 나머지 하인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했다. 이에 하인이 물었다.

“하나는 잘 울고, 하나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살아났고, 거위는 쓸모가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세상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에 의지해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믿으며 맞서 싸운다. 이것이 편견과 편협함에 갇힌 인간의 숙명적인 비극이다.

**비이성적(非理性的) 인간의 현저한 특징은
경솔한 의견과 이 의견의 절대시이다.**

— 버트란트 러셀 (1872~1970) : 영국 철학자